

V. 외제 안써야 외채 이긴다.

宋 熙 永 / 조선일보 기자

일본은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합심하여 절약을 하고, 가급적 외제품을 쓰지 않고 있다.

이 결과 그들은 매년 3백30억 달러씩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는 건전한 사회기강 조성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오늘을 움직이는 지성인들의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될수 있는 주옥같은 글들을 모아 씨리-즈로 게재 하고 있다. 자료제공 : 사회정화위원회

지난달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은 이색적인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일본 국민들에게 『외제품을 사 쓰라』고 호소한 것이다. 나카소네 수상은 직접 쇼핑에 나서 1백달러 어치의 수입품을 구입,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지도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다투어 외제물건을 구입한다는 얘기는 아직껏 들리지 않고 있다. 나카소네 수상은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못이겨 외교상 외제 구입 캠페인을 벌여야 했지만, 일반국민들은 도무지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지도층들은 일본 국민들이 외제구입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을 줄 알고, 외국정부에 생색을 내기위해 그같은 각본을 짤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우리국민이 일본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절약하는 생활습관과 국산품 애용정신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에 일본 박보당(博報堂) 생활종합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일본인들의 외제 배격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조사 대상자 중 「외제보다 더 좋은 물건이 국산품 속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반응이 91.9%였고, 「외제가 일류 제품이라는 생각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대답은 75.6%로 나타났다. 그 만큼 국산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좋은 예로 일본의 주차 빌딩이나 호텔 주차장에서는 외제차 주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접촉사고가 나면 터무니없이 비싼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일본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차체가 큰 미제차를 타는 층은 대개 부동산 투기꾼, 중소기업 경영자, 터키탕 호스티스, 조직 폭력배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제차가 높은 신분의 상징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같은 일본의 외제 배격풍조는 그들의 근검절약 하는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사스럽게 외제를 구입하기보다는 「적게 먹고, 적게 쓰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본 주부들의 쇼핑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주부들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일본 주부들은 대개 가족들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먹을 만한 분량을 구입한다.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몽땅 사 두면, 냉장고의 전력도 많이 소모되고 음식이 남아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우리 주재원 부인들은 <일본 부인들이 쇼핑하는 것을 보면 「저것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알뜰쇼핑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때는 가족들이 한두 끼니를 굶자 않느냐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다.

이런 주부들이 차린 식탁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가족들이 완전히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자녀들에게도 음식을 남기지 말도록 강조한다. 이같은 식생활 습관은 「푸짐해야 먹은 것 같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과는 다른 면이다.

일본 가정에서는 현 종이 수집도 생활화되어 있다. 특히 일본 주부들은 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 종이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모아둔다고 한다. 종이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 종이는

관민(官民)합작회사인 고지(古紙)수집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간다.

일본에서는 비닐봉지나 펑크난 타이어를 재생해 쓰는 것이 체제화되어 있다. 전문적으로 흰 비닐을 수거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성업중이라고 한다. 건설업체들도 아파트를 지을 때 창틀에 수입 원목(原木)보다는 콘크리트 제품을 쓰는 일이 많다. 콘크리트 창틀이 목재 창틀보다 수명이 길고, 값이 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주공아파트에만 콘크리트 창틀을 쓰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민들이나 기업에 못지 않게 외제품 배격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상품수입을 자유화하고서도 비 관세장벽을 만드는 등 온갖 구실로 외제수입을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형식상 외국담배 판매가 자유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산매상들에게 『양담배는 보이지않는 곳에 진열하라』고 행정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담배상들은 이를 따르는 편이다. 또 신규로 수입된 외제담배는 시험판매 후 50만갑 이상 팔려야만 일반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를 작년엔 2백58만 대나 수출했으면서도 외제자동차 수입은 철저히 막고 있다. 일본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일본에 가서 36가지의 형식 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만이 3만km의 주행시험과 배기가스 시험

을 요구한다. 개인이 자동차를 수입할 때도 심지어 엔진제조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외국에서 실시한 검사는 철저히 불신하고, 자기나라에서 검사한 것만을 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전 유아용 침대를 수출하려 했으나 일본식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해 실패한 적이 있다. 유아용 침대를 갖고 가자 10kg이 든 모래주머니를 20cm높이에서 2백50회나 떨어뜨려 보더라는 것. 아무리 튼튼한 침대라 해도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50번 내외 떨어 뜨리면 부서지고 만다고 한다.

또 우리가 음료수로 분류하는 인삼차를 일본 세관에서는 의약품으로 간주,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낫시대엔 일본산 부품을 사용한 것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음료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인 성분분석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은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합심하여 철약을 하고, 가급적 외제품을 쓰지 않고 있다. 이 결과 그들은 매년 3백30억달러씩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또 그들은 현재 2천7백20억달러(83년말기준)의 돈을 외국에 빌려 주고 있다. 물론 일본도 2천3백50억달러 가량 외국빚을 쓰고 있으나, 외국에 빌려준 돈이 많아 당당히 채권국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신평**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신집행부 출범

총무 : 차혜영 · 학술 : 구옥경박사



〈徐貞姬會長〉

大韓女子齒科醫師會
신임 회장단은 지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위임 받은理事선임에 대해 그 구성을 완료하고 신집행부 임원명단을 23일 발표했다.

女齒會의 이번 집행부 임원 구성에서 나타난 특 징은 회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회원들로 우선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회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이번 신집행부 조직에서 學術·公報가 그대로 유임된 것은 지난 회기때 회무활동에 적극성을 보인 까닭에 또 중책을 맡게된 것이라고 개원가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會長:徐貞姬 △副會長:俞賢鎬, 李英姬, 金貞子 △總務理事:車惠榮 △學術理事:具玉卿 △財務理事:張桂順 △厚生理事:李美代 △公報理事:金惠卿 △保健理事:申泳林 △調查理事:權宅見 △保險理事:崔京姬 △國際理事:金惠淑 △資材理事:崔明愛 △監事:강운근·김명원·金京愛